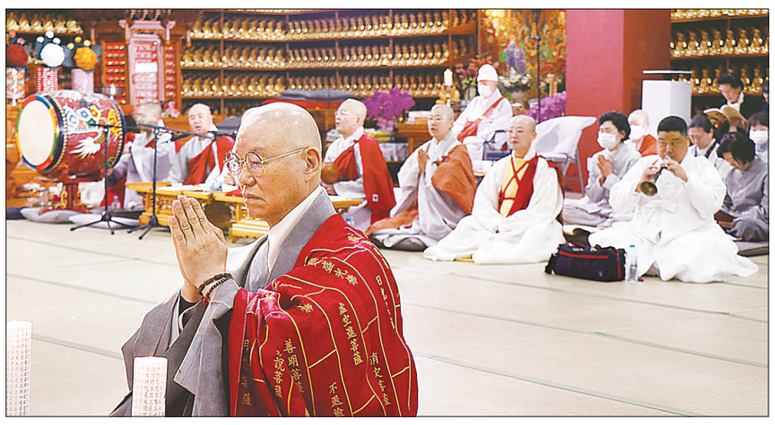
“화마로 희생된 뭇생명 극락왕생 발원”

태고종 · 불교환경연대 등
4월 15일, 서울 무상사서
산불피해 동식물 천도재
18개 녹색사찰 동시 진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천도재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증명하고, 영산재보존회가 집전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희생됐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뭇생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거행됐다.

태고종·불교환경연대·대한불교청년회·BTN불교TV는 4월 15일 서울 BTN불교TV 1층 무상사에서 ‘산불피해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번 천도재는 화마로 생명을 잃은 모든 존재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탐진치 삼독으로 저지른 인간의 과오를 참회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증명하고, 영산재보존회가 집전한 이번 천도재는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는 ‘대령’ △도량을 찾은 영가의 번뇌를 청정케 하는 ‘관욕’ △불·보살에 공양을 베푸는 상단권공(천수바라·도량게·거불·헌좌진언) △중단권공 △하단시식 등 전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 대중은 영단에 향과 차를 올리며 희생된 동식물의 안식을 기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4월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만큼 거센 바람과 변덕스러운 날씨 속 영남 지역을 휩쓸었던 화마의 아픔이 다시금 되새겨진다”며 “자연의 재앙 앞에 무참히 스러져간 생명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천도재의 의미도 짚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닌 존재로, 이 땅 위에 숨 쉬는 하나하나의 생명, 생령들이 똑같이 존귀하다”며 “이번 천도재가 고통 속에서 희생된 동식물의 해탈을 발원하고, 인간의 지은 업보를 참회하며 생명을 향한 자비 정신을 일깨우는 성찰과 실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TN불교TV 회장 성우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화마에 희생된 영가들이 마음의 그늘을 걷고 맑고 고요한 본래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어 한국불교 선지식들이 남긴 열반송을 읊은 성우 대종사는 “오늘 지은 인연으로 더 이상 업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이고득락하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생태공동체 일원으로서 생명존중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저희는 그동안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어리석음을 부처님 전에 온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생명의 존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명평화의 길을 걷길 발원합니다.”

한편, 산불피해 동식물 천도재는 고양 법문사, 울산 벽선암, 고창 미소사, 광주 문빈정사, 울산 성담사, 광주 원효사, 양산 미타정사, 김제 귀신사, 안양 행복선원, 울산 황룡사, 하남 상불사, 서울 심곡암, 화순 시적암, 안성 법계사, 부산 대원각사, 울산 오봉사, 강릉 현덕사, 고창 참당암 등 전국 18개 녹색사찰에서도 동시 진행됐다.

고양 금륜사, 대웅전 준공…지역 사회 열린 도량 ‘우뚝’

4월 13일, 대웅전 준공법회 봉행
2010년 식당 매입 후 15년 불사
본각 스님 “자비 실천 공동체”
진우 스님 “지역 자비 도량 기대”


회주 본각 스님은 금륜사가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참다운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길 서원했다.

고양 금륜사가 대웅전을 조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회주 본각 스님은 금륜사가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도량이자 참다운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길 서원했다.

고양 금륜사는 4월 13일 경내에서 ‘대웅전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금륜사 회주 본각 스님은 2010년, 도심 수행공동체 조성을 발원하며 고양시 서오릉 인근의 식당 건물을 매입해 불사를 시작했다.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포교에 앞장서 온 서울 서대문 금장사와 은평구 금화사를 통합 이전하면서 2013년, 2000여 평 부지를 추가로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소방 검열 등으로 불사가 지연되다 2023년 12월 대웅전 불사의 첫 삽을 떴다.

이날 준공법회가 열린 대웅전은 연면적 459.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지난해 6월 상량식에 이어 11월 만불전과 어린이법당, 지상 1층 법당이 완공됐다. 지난 2월 모든 불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낙성식을 봉행할 수 있었다.

본각 스님은 고불문에서 지난 15년간을 떠올리며 부처님 전에 환희의 마음을 표했다. “수많은 수행자와 불자의 간절한 발원과 정성이 모여 대웅전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스님은 “험난한 세상에 모두가 자비를 실천하는 참다운 수행도량, 부처님 가르침 속에 평온을 얻는 성스러운 기도처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귀한 불사”라고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흙 한 줌, 기왓장 하나, 그리고 법을 짓는 땀방울 이 모든 것이 귀하다”면서 “금륜사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자비의 장으로서 더욱 빛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금륜사 청정도량에서 많은 사람이 가피를 입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용기, 희망을 얻고 세상을 밝게하는 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웅전 설립에 힘을 보탠 건축가와 불자 10여 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아가방앤컴퍼니·로터스월드, 미얀마 지원

5000만원 상당 아동복 3800벌
5월 초 · 중순 미얀마 도착 예정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국내 대표 유아동복 전문기업 아가방앤컴퍼니(대표이사 신상국)가 규모 7.7 강진으로 피해 입은 미얀마 영유아들을 위해 의류 3800벌을 긴급 지원한다.〈사진〉

지원 물품은 5000만원 상당의 각종 아동복과 유아복(상하의, 점퍼 등), 내의류 등으로 지진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미얀마 중부 지역에 우선 지원된다.

로터스월드는 현지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물품을 신속히 이송할 계획이다. 4월 10일 아가방앤컴퍼니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물품은 오는 23일까지 선적을 완료하고, 5월 초·중순까지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물품은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가 현지에서 수령해 직접 지원한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앞으로도 지진 피해 지역 아이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후원계좌 : 농협 301-0058-7941-81, 로터스월드

법보선원, 동국대에 10억원 쾌척

불교 · 이공계 인재 장학생 10명
‘송담 스님 장학’ 증서 전달해



(재)법보선원(이사장 상봉 스님)이 송담 스님의 인재 불사 원력을 받들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억원을 동국대에 쾌척했다.〈사진〉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14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법보선원 ‘송담 스님 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보선원 이사장 상봉 스님은 ‘송담 스님 장학기금’ 10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으며, 1차 장학생으로 선발된 10명의 장학생에게 각 5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사장 상봉 스님은 “장학생들이 송담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 발전과 불교계에 큰 역할을 해주는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오늘 자리한 학생들은 ‘송담 스님 장학’의 장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학업과 불교 신행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반갑다연우야, 마하위하라서 한방진료

60명에 침 치료…아동복 선물도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산하 반갑다연우야 봉사단(단장 이민아)이 4월 1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스리랑카 법당 마하위하라 사원에서 한방진료 봉사를 진행했다.〈사진〉

스리랑카 대표 명절 ‘아룻 아우룻 따’를 맞아 열린 이번 봉사는 한의사 불자연합회 소속 의료진 5명을 포함해 20여 명의 봉사자가 함께했다.

봉사단은 마하위하라 사원을 찾은 스리랑카 이주민 60여 명에게 건강상담과 침·뜸 등 한방 치료를 펼쳤고, 어린이들에게는 아동복을 선물했다.

김내영 기자

미얀마 강진 피해,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생필품이 절실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치명적인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려 당장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필품(식수, 라면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강진 피해 주민 긴급구호 캠페인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058-7941-81 (사)로터스월드
홈페이지 : www.lotusworld.or.kr 후원문의 : 02-725-4277

